



격렬한 동작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에프엠.



가장 먼저 무대 위에 올라 멋진 동작을 선보이고 있는 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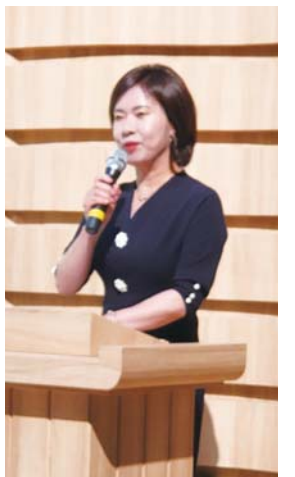


### 리듬에 맞추다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회장 김승곤)이 주최하고, 전북도와 전주매일 신문사가 후원한 '제20회 전라북도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댄스 부문)'가 지난 22일 오후 4~6시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경연에 참가한 11개 댄스팀(개인 참가자 포함)은 무대 위에서 댄스음악의 리듬에 맞춰 멋진 춤사위를 선사했다.

힙합 리듬에 맞춰 멋진 춤을 선보이고 있는 방하린군.



사회를 맡은 송미령 에원예술대학교 교수.



유연한 몸놀림을 선보인 조은세양.



흥겨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딜라이트.



어뮤즈댄스가 무대 위에서 칼군무를 선보이고 있다.



3인조 댄스팀인 look이 파워풀한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장려상을 수상받은 look.



ad댄스의 춤사위.



우수상을 수상받은 어뮤즈댄스가 기념하고 있다.



시상식 전 경합댄스를 벌이고 있는 딜라이트와 look.



어린 나이이지만, 절도있는 동작을 선보이고 있는 최송화양.



최우수상을 수상한 천상이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에프엠.